



FDI 유치활동 끝까지 총공세 추진위, 브라질 총회 대규모 대표단 파견 등 막바지 점검

오는 9월 2일 브라질 살바도르에서 한국의 2013년 FDI 총회 유치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 유치 홍보계획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FDI 유치추진위원회(위원장 양정강·이하 위원회)는 7월 6일 엠베서더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진행된 국제적 유치활동에 대한 경과를 공유하는 한편, 2013년 총회지가 최종 결정될 오는 9월 브라질 FDI 총회에서 막바지 유치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수구 협회장은 "지난 5월 세계보건총회(WHA) 참석을 겸해 제네바 FDI 본부를 둘러보고, 지난달에는 홍콩 치과의사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도 방문해 국제 치과계 리더들을 만나본 결과 한국의 2013년 FDI 총회 유치를 모두 지지하는 분위기였다"며 "최대 경쟁국인 홍콩의 학술대회 규모와 KDA 2010' 만을 비교하더라도 한국이 압도적인 대회유치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는 오는 9월 2일 브라질 살바도르에서 개최되는 2010 FDI 총회에 20여명에 달하는 한국대표단을 파견, 한국이 주최하는 코리아 런천 만찬행사 및 FDI 회장단과의 회의, 호주·뉴질랜드

·일본 등과 함께하는 4개국 회의 등을 통해 한국의 2013년 총회 유치 열의를 마지막까지 전달키로 했다.

특히, 한국 대표단은 총회 초반 일정에 최경림 브라질 대사를 초청해 비아나 FDI 회장을 비롯한 FDI 주요 인사에게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은 박영국 치협 국제이사를 FDI 이사직에, 박선욱 위원을 FDI 위원회 위원으로 당선시키는데도 총력을 기울여 국제 치과계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브라질로 출국 전까지 각 위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FDI 본부의 이사 및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한국의 유치의지를 다시 한번 더 피력키로 했다.

양정강 위원장은 "최근 위원회는 2013년 FDI 총회 유치를 염두해 두고 APDF와의 관계 회복에 힘쓰는 등 총회유치 전반에 걸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한국의 유치전망이 밝지만 최종 결정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가 준비한 유치활동들을 끝까지 펼쳐나가자"고 강조했다.



구강검진 청구 프로그램 8월 무료 배포 구인구직 해결사 'KDA 덴탈잡' 7월 오픈 정보통신위원회 회의

오스텝과 MOU를 맺고 추진해온 구강검진 청구 프로그램이 8월 경 무료로 배포된다.

또 치과의사들의 구인구직 해결사 역할을 해줄 'KDA 덴탈잡' 무료 포털사이트가 7월에 오픈할 예정이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박영채)는 7월 7일 치협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KDA 덴탈잡 포털사이트와 구강검진 청구프로그램을 각각 시연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KDA 무료 덴탈잡(<http://job.kda.or.kr>)과 관련, 초기화면 하단의 구인배너 이용 시 각 직업군에 'more' 기능을 추가해 원하는 직업군에 대한 접근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로 했다.

또 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관계기관의 홈페이지에 배너로 연결하도록 해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구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통한 검색에서 내용 검색이 돼 성명, 핸드폰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이 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강검진 청구 프로그램과 관련, 오스텝 청구 프로그램 유저들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다른 청구 프로그램 유저들이 갖게 되는 한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으며, 프로그램 명칭은 '대한치과의사협회 공식인증 구강검진 청구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또 청구 프로그램의 무료 개방 시기에 대한 정확하

결정사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회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청구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그동안 사용법이 복잡하고 난해해 검진비용 청구에 치과의사들이 애를 먹던 문제가 개선, 구강검진 청구율 상승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영채 정보통신이사는 "구강검진 청구프로그램은 오스텝과 MOU를 맺고 치무위원회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구강검진 청구프로그램이 배포되면 회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구강검진 청구 포션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 협회의 덴탈잡 포털사이트가 구축되면 모 사이트의 유료화로 인한 회원들의 불만을 해결하고 보조인력수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균 부회장은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회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MBC에서 방영된 'MBC 불만제로, 치과위생의 비밀'을 함께 시청하고 이날 제기된 위원들의 의견을 (7일 현재) 9일 개최될 치의권회복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키로 했다.

News
& News

리베이트 쌍벌제 TF 구성 논의 치협 임원 워크숍

치협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갈 전망이다.

치협은 7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임원워크숍을 개최해 총회 수임사항 및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 토론회를 진행했다.

먼저 이날 워크숍에서는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에 대한 각 위원회별 업무추진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지난 4월 열렸던 제47회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휴먼브릿지 문제 등 치과계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이 중 리베이트 쌍벌제의 전면적인 시행과 관련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여러 각도의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시행규칙 제정을 위해 TF팀을 구성했으며 치협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에서는 학술행사 등에 대한 업체의 지원은 허용하되 의약품이나 의료가기 모두 자사 제품을 전시 및 광고하려는 목적으로 부스를 사용하는 경우 1부스당

3백만원 이하, 최대 2부스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의료계 안팎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정부에서 전시부스의 규모 및 금액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는 국내 의료산업 발전 및 육성이라는 정부 정책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치아의 날' 무료구강검진 시에 국민들이나 외국인에게 배포하는 구강위생용품 등의 견본품 등은 예외조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이번 임원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 치과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타 의료단체 및 대한치과기자협회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추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학술행사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치협 내부에도 관련 위원회들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News
& News

문화복지위 홈페이지 '전국구'로 확대 지부 회원들 다양한 문화활동 알림 등 활성화 논의 시도지부 문화복지지이사 연석회의

치협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정애리) 홈페이지(<http://culture.kda.or.kr>)가 전국 각 지부 회원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에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전국 시·도지부 문화복지지이사 연석회의가 7월 3일 서울역 근처 한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경선 치협 문화복지담당 부회장과 정애리 치협 문화복지지이사, 김도원 부산지부 부회장, 민경태 대구지부 문화복지지이사 등을 비롯 전국 7개 지부의 임원들이 참석해 문복홈피의 전국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애리 이사는 문복홈피의 ▲봉사활동 단체소개 ▲의료지식공유 ▲각종 취미활동 커뮤니티 등의 코너를 소개하고, 특히 알림게시판의 '행사캘린더'를 통해 각 지부 및 학회, 소모임 등의 일정이 치과계 전체에 공유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우선 문복홈피의 다양한 기능들에 놀라움을 나타내고 ▲각 지부 홈페이지와의 직접적인 연계 ▲독립적인 도메인 설정 및 홍보를 통한 접근성 강화 ▲세무나 법적인 문제해결을 돕는 새로운 코너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보완책을 내놨다.

김홍일 전북지부 정보통신이사는 "문복홈피 같이 커뮤니티 중심의 사이트는 무엇보다 젊은 치과 의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지부에 돌아가 문복홈피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선 부회장은 "문복홈피 개편은 문화복지 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사업으로 이어가며 전국의 회원 모두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이뤄졌다"며 "문복홈피가 각 지부 및 회원 간 연계고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0월 3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개최 예정인 '구강암·얼굴기형 환자를 위한 2010 스마일마라톤대회'에 대한 각 지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

정애리 이사는 "의료계에서 진행되는 유방암 환자를 위한 핑크마라톤대회처럼 치과계에도 치과질환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대국민 축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스마일마라톤대회를 추진하게 됐다"며 "마라톤을 사랑하는 지역 치과 의사 및 국민들을 위해 각 지부가 대회를 적극 홍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참가접수를 마감하는 스마일마라톤대회는 현재 '치과인 마라톤회(<http://cafe.daum.net/kdmarathon>)'를 중심으로 후원업체들을 적극 모집하고 있으며, 참가희망자들은 대회 홈페이지(www.smilerun.co.kr)를 통해 관련정보열람 및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